

주관적 건강상태와 노동시장 성과

안 주 업*

20세기 출산률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전 세계가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에 가장 기여한 측면은 의료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영양과 건강수준이 제고되고 수명연장기술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은 의료적인 현안 뿐 아니라 경제학적인 측면과 노동경제학적 측면에서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경제학은 인적자본이론에 근거하여 이를 둘러싼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양측의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세대간 사적자원이전(intergenerational private transfer)을 통한 교육이라는 형태를 빈 생애초기 인적자본투자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말 건강자본(health capital)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건강은 독립적인 자본이 아니라 인적자본과 함께 결부되어 노동공급자에 내재화(embedded)된 자본이다. 인적자본수준이 아무리 높더라도 극단적인 경우 사망이나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에 인적자본이 아무런 생산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도 알 수 있듯 건강자본이 미치는 효과는 실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경제학이 아직 일천한 우리 연구계의 실정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매년 동일한 가구와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제4차년도(2001년) ‘건강 및 은퇴’ 부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론적 결론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본고는 건강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간단한 이론모형을 제시하고,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관적 건강상태가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론모형은 생애효용흐름, 건강상태와 인적자본수준, 건강에의 투자와 인적자본투자, 건강관련행위와 건강보험 등을 고려하고 시간 및 금전적 예산조건 하에서 생애효용흐름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성과는 경제활동 참가 또는 취업, 종사상지위나 일자리의 질,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단기적 정태적 시각 뿐 아니라 장기적 동태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취업-미취업상태에 국한하여 분석을 전개한다. 기초분석과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얻은 주된 결론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건강자본 제고를 통해 인적자본의 생산력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방안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1. 건강과 노동 (추후 완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건강과 노동공급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건강상태(health status), 건강관련 행위(health related behaviors), 건강자본투자(investment on health capital),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등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와 다시 역으로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모형을 소개한다. 제III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년도~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의 추이, 건강상태별 이동, 건강상태와 노동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email: jyahn@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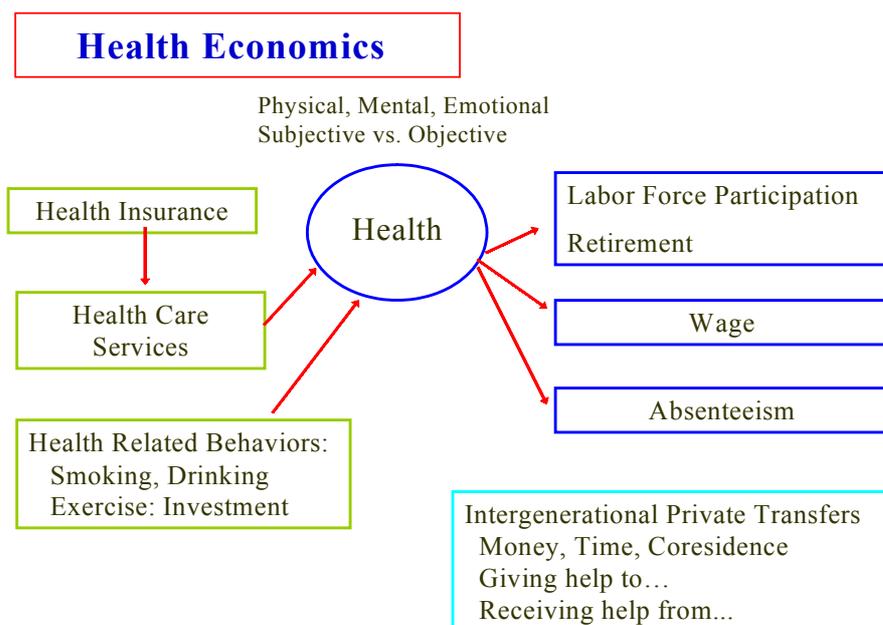
공급을 개략적으로 분석한다. 제IV절에서는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취업확률을 추정하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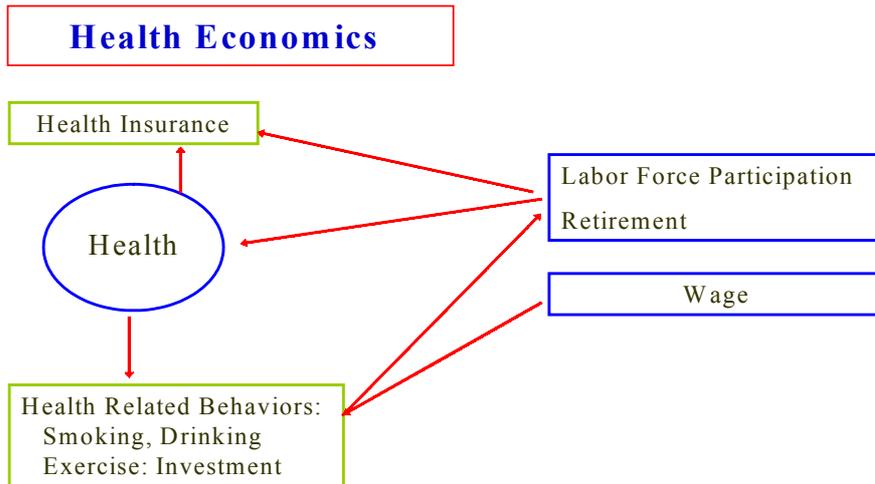
II. 건강과 노동: 이론적 모형

1. 건강과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

2. 건강과 노동: 이론 모형 (발표시 제시)

[그림 1] 건강과 노동의 경제학





III.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와 건강

1. 「한국노동패널조사」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년도~5차년도 자료를 이용한다. 패널자료(panel data)란 횡단면자료(cross-sectional data)와 시계열자료(time series data)가 지니는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자료로 각각의 자료가 파악할 없는 특성들을 서로 보완해 줌으로써 자료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추출한 5000개 가구표본과 이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13,738명을 개인표본으로 1998년에 제1차년도를 실시한 이후 매년 동일한 가구표본과 개인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까지 제6차년도를 마친 상태이다.

가구표본에 대한 설문은 개별 가구원의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학력, 경제활동상태,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등 개별 가구원에 대한 정보, 다양한 소득원천별 가구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 기타소득), 다양한 형태의 자산가치(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주택 유형 및 소유형태와 자산가치 등)와 부채잔액 및 상환금, 그리고 다양한 지출형태별 가구월생활비 및 저축 등 가계경제 상황, 사교육과 자녀보육, 다양한 세대간 사적 자원이전(intergenerational private transfer)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개인표본에 대한 설문은 취업자(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시작시점, 업종 및 직종, 기업 유형, 사업체규모,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과 근로조건 등 현재 일자리의 특성과 취업 전 구직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구직활동하지 않는 이유, 취업가능성, 구직방법, 구직기간, 구직시 어려움,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희망임금 등)을 포함한 구직활동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제4차년도(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장되었는 바, 현 사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업종, 사업체명, 사업체소재지, 무급가

족종사자 수 및 사업체규모 등), 창업당시의 현황 (사업체 시작시점, 창업동기, 유산상속여부 및 상속자, 사업체 창립시점, 사업체 시작 당시 자본금, 자본금 조달방법 및 구성 등), 창업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창업훈련(7종) 이수여부,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및 현재 당면한 자영업 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자영업 근로의 규칙성 및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또는 그만둘 당시)의 월평균 자영업소득 및 연간매출액, 사업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 주가 되는 사업체의 중장기 목표, 자영업을 그만 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또한 모든 개인표본에 대하여 패널최초진입 당시 기준으로 직전 일자리의 특성을 포함한 15세 이후 취업력을 포함하여, 정규교육 및 직업훈련, 군복무, 부모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상태, 혼인력과 출산력, 그리고 다양한 주관적 만족도 및 교육-기술매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3차년도(2000년)의 ‘청년층부가조사’에 이어 제4차년도에서(2001년)는 ‘건강과 은퇴’를 주제로 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15세 이상 개인표본을 대상으로 한 건강부분 부가조사에서는 현재의 주관적 건강상태, 1년 전과 비교할 때 건강상태의 변화, 건강상태에 따른 일자리 제약, 장애(장애여부, 장애등록여부 및 장애종류와 장애급수, 산재여부 등), 지병(지병여부와 종류, 발생시기, 병원이용 및 투약여부), 지난 1년간 입원경험과 정기건강진단, 의료시설 이용현황(최근 1년과 최근 1달, 병명과 이용한 의료기관 및 서비스유형),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와 본인부담금(pocket-money), 건강관련행위(깃연, 음주, 정기적 운동 등 건강유지방법), 건강관련 부양 또는 피부양, 자신 및 가족으로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absenteeism)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는 제2차년도부터 실시되어 개인 건강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다만 제5차년도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조사되고 있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

2. 주관적 건강상태 추이

제4차년도 건강관련 부가조사에 포함된 개인표본은 11,043명이나 이 중 본조사에 응한 15세 이상 개인표본은 10,607명이며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10,604명을 분석대상 표본으로 하였다. 이중 제1차년도 원개인표본은 9,901명이며, 제2차년도에는 8,950명, 제3차년도에는 9,284명, 제5차년도에는 9,802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표 1>은 분석표본에 대한 제2차년도부터 제4차년도까지 건강상태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먼저 제2년도와 제3차년도 조사는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부가조사로 실시된 제4차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전에 비해 나빠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아주 건강하다’는 응답은 5.1%로 전년 26%나 21%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제2차년도와

<표 1> 조사연도별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명, %)

	건강상태별 분포			건강상태별 비중		
	제2차년도	제3차년도	제4차년도	제2차년도	제3차년도	제4차년도
전체	10,604	10,604	10,604	8,928	9,260	10,604
아주 건강	2,355	1,986	536	26.4	21.4	5.1
건강한 편	3,874	4,498	5,514	43.4	48.6	52.0
보통	1,562	1,639	2,453	17.5	17.7	23.1
건강하지 않은 편	914	948	1,727	10.2	10.2	16.3
아주 안좋음	223	189	374	2.5	2.0	3.5
미응답	22	21	0			
표본없음	1,654	1,323	0			

주: 표본은 제4차년도 은퇴 및 건강에 응답한 개인표본 11,043명 중 15세 이상은 10,607명이며 이 중 건강상태에 적절하게 응답한 10,604명. 비중은 미응답이나 표본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산.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차년도~제4차년도 자료.

제3차년도에서는 가구용설문에 포함되어 이에 응답하는 자가 주관적 판단을 하였던 반면 제4차년도에서는 개인용 부가조사 설문에 포함되어 응답자가 본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또한 전반적으로 동일표본에 대해 시간이 경과할수록(개인으로서의 연령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임)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건강저하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표 4>는 각 연도별 주관적 건강상태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제4차년도 건강상태 상대적 저하를 감안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상태안정성(동일한 건강상태 수준에 있는 비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차년도와 제3차년도 사이에 나타난 변화를 보면, ‘아주 건강’한 자 중 40%가 여전히 아주 건강하거나 44%는 건강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비중은 4% 미만으로 나타난다. 상태안정성은 ‘건강한 편’이 62%로 가장 높고, ‘아주 안좋다’가 24%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표에서 대각선의 우측상단은 건강상태가 악화된 비중이고 좌측하단은 건강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개선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제3차년도와 제4차년도의 변화를 보면, ‘아주 건강’한 경우(7.3%)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상태안정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제3차년도에 ‘아주 건강’한 표본 중 66%, 상당수가 ‘건강한 편’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보통인 편’으로도 20%가 이동하여 제4차년도에서 ‘아주 건강’한 비중이 낮아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 5>는 제4차년도 조사에서 개인표본 주요 특성별 주관적 건강상태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건강자본의 훼손(depreciation)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60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20대에서는 4%, 30대에서는 7%에 불과하며, 40대에 15%로 높아져 이 연령대에서 건강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표 2> 주관적 건강상태의 이행

(단위: 명, %)

제2차년도	제3차년도	전체	아주 건강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않은 편	아주 안 좋음
전체		8,414	20.9	48.1	18.3	10.6	2.1
아주 건강		2,198	42.4	44.4	9.1	3.5	0.4
건강한 편		3,626	18.3	61.6	15.0	4.4	0.7
보통		1,507	7.4	41.3	34.4	15.1	1.9
건강하지 않은 편		865	4.7	21.5	28.1	38.0	7.6
아주 안 좋음		218	3.7	13.3	14.7	44.0	24.3

주와 자료: <표 1>의 주와 자료 참조. 양 조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적절하게 응답한 표본.

<표 3> 주관적 건강상태의 이행

(단위: 명, %)

제3차년도	제4차년도	전체	아주 건강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않은 편	아주 안 좋음
전체		9,260	4.5	51.0	23.6	17.0	3.8
아주 건강		1,986	7.3	66.0	20.0	6.1	0.6
건강한 편		4,498	5.6	60.9	22.3	9.7	1.5
보통		1,639	1.1	32.7	34.7	28.4	3.1
건강하지 않은 편		948	0.6	12.4	21.1	52.0	13.8
아주 안 좋음		189	0.5	10.6	7.4	33.9	47.6

주와 자료: <표 1>의 주와 자료 참조. 양 조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적절하게 응답한 표본.

<표 4> 주관적 건강상태의 이행

(단위: 명, %)

제2차년도	제4차년도	전체	아주 건강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않은 편	아주 안 좋음
전체		8,928	4.3	50.2	24.0	17.5	3.9
아주 건강		2,355	6.2	60.7	23.8	8.6	0.7
건강한 편		3,874	5.5	59.3	22.4	11.4	1.5
보통		1,562	1.3	38.7	30.6	25.3	4.2
건강하지 않은 편		914	0.2	14.6	23.4	47.5	14.3
아주 안 좋음		223	3.1	9.0	11.7	42.6	33.6

주와 자료: <표 1>의 주와 자료 참조. 양 조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적절하게 응답한 표본.

둘째, 교육수준 역시 건강자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대졸이상이나 대학 중퇴,

휴학 등 대졸미만에서는 건강상 문제를 인식하는 비중이 6% 내외인데 비해 고졸미만에서는 38%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 자체가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고졸 미만 저학력자 대부분이 고연령층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

셋째, 가구총소득수준 역시 건강자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이 연 7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에 속하는 개인표본 중 건강상 문제를 인식하는 비중은 46%, 1400만 원 미만은 23%를 상회하는 반면 2800만 원 이상에서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건강자본수준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이후 밝혀듯, 건강자본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아진다는 점과 개인의 건강상 문제가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점, 그리고 건강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관련투자에 소요되는 시간적·금전적 비용, 그리고 건강관련 서비스 혜택에서 소득 또는 취업여부에 따른 불균등 등을 감안하면, 건강상 문제와 가구 전체 소득 사이에는 악순환이 야기됨을 추측할 수 있다. 반대로 건강자본의 증진을 통하여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빈곤 문제해결에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제공(정부이전지출이나 사회부조)과 더불어 건강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예상을 능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1) 안주엽(2003)은 동일한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연령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최종 교육연한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표 5> 표본 특성과 주관적 건강상태(제4차년도)

(단위: 명, %)

	전체	아주 건강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않은 편	아주 안좋음
전체	9,054	4.1	50.9	25.0	17.0	3.0
연령대별						
15~29세	1,762	8.9	71.1	16.1	3.7	0.2
30~39세	2,160	6.0	65.3	21.7	6.4	0.6
40~49세	2,090	2.4	54.9	27.7	13.8	1.2
50~59세	1,372	1.3	37.2	32.2	25.2	4.1
60세 이상	1,670	1.2	17.4	29.1	41.7	10.5
교육수준별						
고졸미만	3,494	1.2	31.1	30.0	31.3	6.5
고졸	3,326	5.3	61.2	22.8	9.4	1.2
대졸미만	278	6.1	65.1	23.0	5.8	0.0
대졸이상	1,956	7.1	66.9	19.8	5.8	0.4
가구총소득 수준별						
소득없음	278	2.5	44.6	24.8	23.7	4.3
700만원미만	1,129	3.3	26.5	23.9	35.9	10.5
1400만원미만	1,725	3.6	46.6	26.5	20.0	3.3
2800만원미만	3,399	4.0	55.7	25.4	13.1	1.8
2800만원이상	2,523	5.2	59.1	23.7	10.9	1.0

주: 표본은 제4차년도 개인표본 중 15세 이상, 비재학자, 비장애인만 포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4차년도 자료.

<표 6>은 개인표본 주요 특성별 주관적 건강상태의 분포를 이를 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15%)보다 여성(25%)이 건강상 문제를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 교육수준, 가구총소득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양자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표본 특성과 주관적 건강상태(제4차년도)

(단위: 명, %)

	남성						여성					
	전체	아주 건강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않은 편	아주 안 좋음	전체	아주 건강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않은 편	아주 안 좋음
전체	4,231	5.5	57.4	22.5	12.5	2.1	4,823	2.9	45.3	27.1	20.9	3.8
연령대별												
15~29세	754	11.7	70.2	13.5	4.4	0.3	1,008	6.7	71.7	18.1	3.3	0.2
30~39세	1,083	7.6	68.6	18.2	5.2	0.5	1,077	4.4	62.0	25.3	7.7	0.6
40~49세	1,035	3.7	62.8	23.0	9.5	1.1	1,055	1.2	47.1	32.2	18.1	1.3
50~59세	688	1.9	48.0	29.5	17.9	2.8	684	0.7	26.3	34.9	32.6	5.4
60세 이상	671	1.8	26.2	31.7	32.5	7.7	999	0.8	11.5	27.3	47.9	12.4
교육수준별												
고졸미만	1,272	2.2	40.4	29.2	23.6	4.6	2,222	0.6	25.7	30.5	35.7	7.5
고졸	1,650	5.8	62.8	21.0	8.9	1.5	1,676	4.9	59.7	24.6	10.0	0.9
대졸미만	198	8.1	65.7	21.2	5.1	0.0	80	1.3	63.8	27.5	7.5	0.0
대졸이상	1,111	8.5	67.2	17.4	6.4	0.5	845	5.3	66.4	23.0	5.1	0.2
가구총소득 수준별												
소득없음	127	3.9	51.2	22.8	19.7	2.4	151	1.3	39.1	26.5	27.2	6.0
700만원미만	443	5.2	33.9	25.1	28.4	7.4	686	2.0	21.7	23.2	40.7	12.4
1400만원미만	836	5.0	52.6	24.0	15.7	2.6	889	2.2	40.9	28.8	24.1	3.9
2800만원미만	1,636	5.0	61.1	23.0	9.6	1.3	1,763	3.1	50.7	27.7	16.4	2.2
2800만원이상	1,189	6.9	65.0	19.8	7.5	0.8	1,334	3.7	53.8	27.2	13.9	1.3

주: 표본은 제4차년도 개인표본 중 15세 이상, 비재학자, 비장애인만 포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4차년도 자료.

3. 건강상태와 노동공급

가. 노동공급 추이

<표 7>은 제1차년도부터 제5차년도 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2차년도에서 59%로 경제위기 원년인 1998년 제1차년도 56%보다 3% 가까이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 하락하고 제5차년도 조사에서 59%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취업 비중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여 제5차년도에 56.8%에 이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임금근로 비중은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임금근로 비중이 상승한 것이 취업 비중 상승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은 제1차년도와 제5차년도 사이에 경제활동상태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두 개 조사연도 간 경제활동상태 이동은 <부표 1>에서 보여준다.)

<표 7> 조사연도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

	제1차년도	제2차년도	제3차년도	제4차년도	제5차년도
유효표본	9,866	8,950	9,281	10,604	9,425
경제활동인구	5,528 (56.0)	5,282 (59.0)	5,202 (56.0)	5,967 (56.3)	5,529 (58.7)
취업	4,824 (48.9)	4,970 (55.5)	4,997 (53.8)	5,756 (54.3)	5,357 (56.8)
임금근로	2,943 (29.8)	3,106 (34.7)	3,171 (34.2)	3,742 (35.3)	3,512 (37.3)
상용직	2,367 (24.0)	2,264 (25.3)	2,425 (26.1)	2,890 (27.3)	2,688 (28.5)
임시직	258 (2.6)	572 (6.4)	352 (3.8)	442 (4.2)	406 (4.3)
일용직	318 (3.2)	270 (3.0)	394 (4.2)	410 (3.9)	418 (4.4)
비임금근로	1,881 (19.1)	1,864 (20.8)	1,826 (19.7)	2,014 (19.0)	1,845 (19.6)
고용주	352 (3.6)	390 (4.4)	412 (4.4)	477 (4.5)	461 (4.9)
자영자	1,074 (10.9)	988 (11.0)	979 (10.5)	1,050 (9.9)	947 (10.0)
무급가족종사	455 (4.6)	486 (5.4)	435 (4.7)	487 (4.6)	437 (4.6)
미취업	5,042 (51.1)	3,980 (44.5)	4,284 (46.2)	4,848 (45.7)	4,068 (43.2)
실업	704 (7.1)	312 (3.5)	205 (2.2)	211 (2.0)	172 (1.8)
비경제활동인구	4,338 (44.0)	3,668 (41.0)	4,079 (44.0)	4,637 (43.7)	3,896 (41.3)
표본없음	738	1,654	1,323	0	1,179

주: 표본은 제4차년도 개인표본 10,607명 중 건강상태에 응답한 10,604명. ()안의 숫자는 유효표본 중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차년도~제5차년도 자료.

<표 8> 제1차년도와 제5차년도 경제활동상태 이동

(단위: 명, %)

제1차년도	제5차년도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	실업	비경제활
전체	8778	2583	387	410	447	930	421	159	3441
		29.4	4.4	4.7	5.1	10.6	4.8	1.8	39.2
상용직	2132	71.0	2.7	2.3	3.8	4.6	1.2	1.5	12.9
임시직	236	30.1	22.5	9.7	1.3	7.2	1.3	2.1	25.8
일용직	294	22.1	6.1	38.1	2.0	6.8	0.3	2.0	22.4
고용주	306	10.1	1.3	2.3	51.0	20.6	4.9	1.3	8.5
자영자	998	9.0	1.9	4.3	10.6	54.5	4.8	0.3	14.5
무급가족종사	419	7.6	2.4	1.4	5.0	9.8	51.6	1.2	21.0
실업	639	28.8	9.7	11.3	3.4	7.4	3.0	2.3	34.1
비경제활동인구	3754	15.9	4.3	2.6	1.4	2.7	2.5	2.4	68.2

주: 표본은 제4차년도 개인표본 중 제1차년도와 제5차년도에 조사된 개인표본 8,778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차년도~제5차년도 자료.

<표 9> 조사연도별 취업-미취업상태 이동

(단위: 명, %)

제1차년도	제2차년도	제3차년도	제4차년도	제5차년도	표본수	비중
1	1	1	1	1	2,888	37.9
1	1	1	1	0	159	2.1
1	1	1	0	1	85	1.1
1	1	1	0	0	119	1.6
1	1	0	1	1	95	1.2
1	1	0	1	0	20	0.3
1	1	0	0	1	41	0.5
1	1	0	0	0	113	1.5
1	0	1	1	1	98	1.3
1	0	1	1	0	21	0.3
1	0	1	0	1	12	0.2
1	0	1	0	0	11	0.1
1	0	0	1	1	62	0.8
1	0	0	1	0	16	0.2
1	0	0	0	1	36	0.5
1	0	0	0	0	167	2.2
0	1	1	1	1	445	5.8
0	1	1	1	0	49	0.6
0	1	1	0	1	33	0.4
0	1	1	0	0	57	0.7
0	1	0	1	1	57	0.7
0	1	0	1	0	16	0.2
0	1	0	0	1	34	0.4
0	1	0	0	0	102	1.3
0	0	1	1	1	186	2.4
0	0	1	1	0	38	0.5
0	0	1	0	1	29	0.4
0	0	1	0	0	59	0.8
0	0	0	1	1	229	3.0
0	0	0	1	0	81	1.1
0	0	0	0	1	216	2.8
0	0	0	0	0	2,056	26.9

주: 표본은 제4차년도 개인표본 10,607명 중 건강상태에 응답한 10,604명 중 제1차년도~제5차년도 모두 포함된 7,630명. 1은 취업, 0은 미취업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차년도~제5차년도 자료.

상대적으로 상용직 안정성이 71%로 임시직이나 일용직(각각 23%와 38%)에 비해 월등히 높고 자영업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은 세부 상태별로 상태안정성에 차이가 거의 없이 50%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상태의 안정성은 68%로 상용직과 자영업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상용직이 이동하는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여 잠정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각각 30%와 22%로, 저간에 논의되는 ‘비정규함정(trapped in atypical work)’과는 달리, 임시일용직이 상용직으로 가는 초석(stepping-stone)의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반면에는 이들이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하는 비중도 각각 26%와 22%로 임시일용직을 비경제활동과 취업 사이에서 대안으로 역할하고 있는 측면도 강함을 알 수 있다. 비임금근로에서 임금근로로 이행하는 비중은 11~14%에 이르고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자 경우는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9>는 제1차연도부터 제5차조사 모두 응답한 표본 4,742명을 대상으로 취업-미취업상태 이동 가지치기(tree)를 보여주고 있다. 5개 조사연도 모두 취업한 비중은 38%, 모두 미취업한 비중은 2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5개년도에 걸친 취업안정성이 미취업상태안정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나. 건강상태와 취업

<표 10>은 건강상태별 취업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본은 제4차연도 건강 및 은퇴 부가조사 중 건강부분에 적절히 응답한 15세 이상 10,604명 중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와 장애인이라 응답한 자를 제외한 9,054명이다. 다만 주관적 건강상태가 조사되지 않은 제5차연도에 대해서는 제4차연도에서 밝힌 주관적 건강상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첫째, 건강자본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제4차연도 취업확률을 보면, ‘아주 건강’한 표본에서는 72%에 이르는 반면 ‘건강이 아주 안 좋은’ 표본에서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건강상태가 연령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연령은 다시 경제활동참가나 취업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론일 수도 있다. 연령효과를 통제 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실증분석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둘째, 전반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취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주 건강’한 표본을 포함한 대부분 건강상태에서(심지어 ‘건강하지 않은 편’인 표본에서조차) 취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건강이 아주 안 좋은’ 표본에서는 취업 비중이 거의 변화가 없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 비중이 높아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셋째,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고, 제2차연도와 제5차연도 사이 취업 비중에서 나타나는 변화폭도 작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0> 조사연도별 건강상태별 취업 비중

(단위: 명, %)

	전체	아주 건강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않은 편	아주 안좋음
전체						
제2차년도	59.3	63.9	64.3	55.8	39.5	23.5
제3차년도	59.0	64.7	66.2	51.8	32.3	20.5
제4차년도	60.6	69.5	69.3	58.4	42.2	23.8
제5차년도	61.9	72.1	70.6	60.2	43.1	23.9
남성						
제2차년도	75.6	79.8	79.6	71.0	52.1	35.6
제3차년도	76.0	80.0	83.2	67.3	43.6	25.5
제4차년도	76.4	78.1	82.5	74.8	57.8	32.6
제5차년도	79.0	83.5	85.3	76.9	59.8	35.6
여성						
제2차년도	45.6	47.5	50.0	45.4	33.4	16.8
제3차년도	44.4	49.7	49.5	41.8	26.1	17.3
제4차년도	46.8	55.3	54.6	46.5	34.1	19.6
제5차년도	47.2	52.8	54.7	48.2	34.4	18.8

주: 표본은 제4차년도 건강상태에 응답한 개인표본 10,604명 중 15세 이상, 비재학자, 비장애인만 포함한 9,054명.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제5차년도에 대해서는 제4차년도 건강상태를 적용.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차년도~제5차년도 자료.

IV. 취업 결정요인: 주관적 건강이 미치는 효과

1. 표본과 기초분석

노동시장 성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여부, 취업이나 좀더 세밀하게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또는 종사상지위, 근로시간, 임금 또는 근로소득 수준 등이 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표로 구성되는 노동시장 성과를 단순히 현재에서만 정태적(static)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에 걸친 동태적(dynamic) 시각에서 상태변화나 노동시장 성과의 변화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자료가 갖는 제한으로 일단은 정태적인 시각에서 취업여부만을 지표로 살펴보기로 한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취업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본 절에서는 제4차년도 조사당시 15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재학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라고 밝히지 않은 7,986명(제5차년도에는 이 중 7,149명이 남아 있다) 개인표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2. 분석모형

취업과 미취업 두 개의 상태를 상징하는 본 절에서의 분석모형은 매우 간단하다. 즉, 조사시점에 취업상태이면 종속변수를 1, 미취업상태에 있으면 0으로 설정한다. 종속변수가 이진변수(binary variable)인 경우

$$y^* = X\beta + \epsilon, y = 1(\text{취업})$$

으로 표현되며, y^* 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 y 는 관찰되어진 종속변수, X 는 설명변수 벡터, β 는 이에 상응하는 추정되어질 계수 벡터, ϵ 은 오차항, $1(\cdot)$ 는 () 안의 조건이 사실이며(true) 1, 거짓이면(false) 0 값을 갖는 지수함수(indicator function)이다. 오차항 ϵ 가 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하면 프로빗모형(probit model)이 된다.

취업은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측면이 부합(match)될 때 발생하는 상태이므로 취업결정요인에는 양쪽의 의사결정에 포함되는 요인이 포함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근로외소득(non-labor income)이나 이의 구성요소(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 소득), 12세 미만 자녀 존재여부 또는 연령대별(0~2세 미만, 2~6세 미만, 6~9세 미만, 9~12세 미만) 자녀 존재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동거 여부, 비동거 존속과의 경제적 교류여부(부모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경우와 주는 경우로 구분), 주거입주형태(자가, 전세, 월세) 및 주거자산가치(자가 시중가치, 월세나 전세의 경우 보증금), 자산가치와 이의 구성요소(주거지 외 부동산가치, 금융자산가치), 가구 총채, 지역 노동수요를 반영하는 지역실업률(조사연도의 해당 광역시도별 실업률을 적용)이 포함된다. 이에 더하여, 주관적 건강상태가 미치는 추가적인 효과를 보기 위하여 당시 주관적 건강상태와 과거 주관적 건강상태를 5점 척도 그대로 사용 또는 건강상태 양호와 불량(기준은 보통)으로 구분하여 가변수로 활용한다. <표 11>은 설명변수로 활용되는 결정요인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표 12>와 <표 13>은 제4차년도와 제5차년도 조사에 대해 성별, 취업여부별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 변수 정의 및 기초통계량

변수명	정의	제4차년도	제5차년도
표본수		7,986	7,149
Female	여성=1, 남성=0	0.5207	0.5245
Age	연령: 4차년도 조사당시 만나이(세)	40.3	40.7
AgeSq	연령 제곱	1767.8	1798.4
HDO4	고졸 미만 (준거집단: 고졸)	0.3203	0.3268
CDO4	(초)대졸 미만	0.0342	0.0359
CGR4	대졸	0.2220	0.2189
GRA4	대학원졸	0.0170	0.0159
Never	미혼 (준거집단: 기혼 유배우)	0.2020	0.1834
Ever	기혼 무배우	0.0595	0.0601
LUrate	광역시도 단위 지역실업률(%)	3.90	3.20
ChildY0	12세 미만 자녀 있음.	0.4209	0.4142
ChildY1	0~2세 미만 자녀 있음.	0.0711	0.0543
ChildY2	2~6세 미만 자녀 있음.	0.1737	0.1630
ChildY3	6~9세 미만 자녀 있음.	0.1325	0.1322
ChildY4	9~12세 미만 자녀 있음.	0.1804	0.1873
CoresY1	65세 이상 동거자 있음.	0.1349	0.1416
MoneyTo	비동거 부모에게 금전 보냄.	0.3610	0.3956
MoneyFrom	비동거 부모로부터 금전 받음.	0.1251	0.1225
Health4	제4차년도 건강상태(5점척도)	2.52	2.52
Health3	제3차년도 건강상태(5점척도)	2.14	2.14
Health2	제2차년도 건강상태(5점척도)	2.08	2.08
HealthGood4	제4차년도 건강상태: 아주 건강 또는 건강한 편	0.6039	0.5995
HealthBad4	제4차년도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 편 또는 아주 안 좋음	0.1495	0.1520
HealthGood3	제3차년도 건강상태: 아주 건강 또는 건강한 편	0.7436	0.7423
HealthBad3	제3차년도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 편 또는 아주 안 좋음	0.0841	0.0836
HealthGood2	제2차년도 건강상태: 아주 건강 또는 건강한 편	0.7493	0.7474
HealthBad2	제2차년도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 편 또는 아주 안 좋음	0.0833	0.0842

<표 11> 변수 정의 및 기초통계량 (계속)

		제4차년도	제5차년도
NonLab	가구총소득(근로소득제외) 전체 표본	251.6	433.8
(유소득 비중)	(연간, 만 원)	32.5	41.1
(유소득 평균)		773.4	1,056.3
TfiF	금융소득(연간, 만 원)	46.1	44.2
(유소득 비중)		8.2	8.5
(유소득 평균)		559.0	521.0
TfiR	부동산 소득(연간, 만 원)	63.7	200.5
(유소득 비중)		7.3	9.5
(유소득 평균)		875.0	2,104.4
TfiS	사회보장소득(연간, 만 원)	27.8	49.1
(유소득 비중)		4.5	6.1
(유소득 평균)		614.7	807.2
TfiT	이전소득 (연간, 만 원)	36.6	82.3
(유소득 비중)		16.5	23.9
(유소득 평균)		221.9	344.3
TfiE	기타 소득 (연간, 만 원)	77.5	57.7
(유소득 비중)		4.8	4.8
(유소득 평균)		1,620.4	1,207.1
ValAsset	자산 총가치 (만 원)	11,219	6,811
(유소득 비중)		96.7	79.0
(유소득 평균)		11,598	8,618
ValReal	부동산 총가치(현거주지 제외) (만 원)	2,975	3,724
(유소득 비중)		23.2	24.1
(유소득 평균)		12,834	15,459
ValFin	금융자산 총가치 (만 원)	1,616	1,731
(유소득 비중)		66.5	68.1
(유소득 평균)		2,430	2,540
HomeRent	월세 (준거집단: 자가)	0.0883	0.0024
HomeJun	전세	0.3556	0.0059
ValHome	거주 주택 가치(시세, 보증금) (만 원)	6,628	1,356
(유소득 비중)		91.7	15.7
(유소득 평균)		7,228	8,650
ValDebt	가구 총부채 (만 원)	2,044	2,283
(유소득 비중)		52.7	54.1
(유소득 평균)		3,879	4,217

주: 표본은 제4차년도 건강상태에 응답한 개인표본 10,604명 중 15세 이상 65세 미만, 비재학자, 비장애인만 포함한 7,986명. 연속변수에 대한 표준편차는 표의 단순화를 위해 생략(저자에게 요구하면 구할 수 있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차년도~제5차년도 자료.

<표 12> 취업상태별 기초통계량 (제4차년도)

변수명	전체		남성		여성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표본수	2,729	5,257	728	3,100	2,001	2,157
Female	0.7332	0.4103				
Age	40.5	40.2	39.6	40.9	40.9	39.2
AgeSq	1832.5	1734.2	1823.5	1779.3	1835.8	1669.5
HDO4	0.3390	0.3106	0.2514	0.2532	0.3708	0.3931
CDO4	0.0528	0.0245	0.1415	0.0297	0.0205	0.0172
CGR4	0.1759	0.2460	0.2005	0.2642	0.1669	0.2197
GRA4	0.0070	0.0223	0.0110	0.0316	0.0055	0.0088
Never	0.2107	0.1975	0.4560	0.1719	0.1214	0.2341
Ever	0.0685	0.0548	0.0536	0.0323	0.0740	0.0872
HomeRent	0.0898	0.0875	0.1003	0.0835	0.0860	0.0932
HomeJun	0.3650	0.3508	0.2610	0.3732	0.4028	0.3185
LUrate	3.92	3.88	3.96	3.88	3.91	3.88
ChildY0	0.4034	0.4299	0.1978	0.4832	0.4783	0.3533
ChildY1	0.0887	0.0620	0.0343	0.0826	0.1084	0.0325
ChildY2	0.1924	0.1640	0.0797	0.2003	0.2334	0.1117
ChildY3	0.1261	0.1358	0.0549	0.1539	0.1519	0.1099
ChildY4	0.1396	0.2016	0.0783	0.2084	0.1619	0.1919
CoresY1	0.1326	0.1360	0.1497	0.1232	0.1264	0.1544
MoneyTo	0.3375	0.3732	0.2500	0.3987	0.3693	0.3366
MoneyFrom	0.1228	0.1263	0.0755	0.1365	0.1399	0.1117
Health4	2.69	2.43	2.60	2.35	2.72	2.54
Health3	2.30	2.06	2.32	2.01	2.29	2.14
Health2	2.20	2.01	2.20	1.95	2.19	2.10
HealthGood4	0.5192	0.6479	0.5769	0.6932	0.4983	0.5828
HealthBad4	0.2158	0.1151	0.1992	0.0913	0.2219	0.1493
HealthGood3	0.6720	0.7807	0.6731	0.8116	0.6717	0.7362
HealthBad3	0.1308	0.0599	0.1538	0.0484	0.1224	0.0765
HealthGood2	0.7032	0.7733	0.7115	0.8023	0.7001	0.7316
HealthBad2	0.1268	0.0607	0.1401	0.0484	0.1219	0.0783

주와 자료: <표 11> 참조.

<표 12> 취업상태별 기초통계량(제4차년도) (계속)

변수명	전체		남성		여성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표본수	2,729	5,257	728	3,100	2,001	2,157
NonLab	350.1	200.5	454.0	207.6	312.3	190.2
(유소득 비중)	39.0	29.2	46.0	28.1	36.5	30.6
(유소득 평균)	897.1	687.5	986.7	738.0	856.0	620.8
TfiF	66.2	35.6	87.3	38.5	58.5	31.5
(유소득 비중)	10.6	7.0	10.0	7.7	10.8	6.0
(유소득 평균)	622.8	508.7	871.0	499.1	539.3	526.3
TfiR	83.8	53.2	123.6	54.1	69.4	51.9
(유소득 비중)	9.5	6.1	11.7	6.0	8.7	6.2
(유소득 평균)	879.9	871.1	1,058.3	896.9	793.3	835.0
TfiS	48.2	17.2	74.4	14.7	38.7	20.8
(유소득 비중)	6.3	3.6	8.9	3.0	5.3	4.4
(유소득 평균)	764.8	478.0	833.5	483.3	723.0	472.8
TfiT	46.3	31.6	51.6	30.0	44.3	33.8
(유소득 비중)	19.2	15.1	23.5	13.8	17.6	16.9
(유소득 평균)	240.9	209.4	219.5	217.0	251.3	200.4
TfiE	105.6	62.9	117.2	70.3	101.4	52.3
(유소득 비중)	5.8	4.2	5.8	4.5	5.8	3.8
(유소득 평균)	1,812.9	1,483.1	2,030.9	1,546.1	1,734.6	1,374.6
ValAsset	11,913	10,859	12,326	10,982	11,762	10,682
(유소득 비중)	96.3	97.0	94.5	97.0	97.0	96.9
(유소득 평균)	12,370	11,200	13,043	11,322	12,132	11,025
ValReal	2,910	3,008	3,548	2,843	2,678	3,245
(유소득 비중)	21.6	24.0	23.9	22.5	20.8	26.1
(유소득 평균)	13,461	12,540	14,844	12,628	12,883	12,431
ValFin	1,818	1,511	1,814	1,604	1,820	1,379
(유소득 비중)	63.4	68.1	52.3	69.8	67.4	65.6
(유소득 평균)	2,868	2,219	3,466	2,297	2,699	2,100
ValHome	7,184	6,340	6,964	6,535	7,264	6,059
(유소득 비중)	91.6	91.7	89.7	91.8	92.4	91.6
(유소득 평균)	7,839	6,912	7,764	7,118	7,866	6,614
ValDebt	2,015	2,058	2,202	1,972	1,948	2,183
(유소득 비중)	49.3	54.4	52.2	53.9	48.3	55.2
(유소득 평균)	4,086	3,781	4,218	3,656	4,034	3,956

주와 자료: <표 11> 참조.

<표 13> 취업상태별 기초통계량(제5차년도)

변수명	전체		남성		여성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표본수	2,313	4,836	535	2,864	1,778	1,972
Female	0.7687	0.4078	0.0000	0.0000	1.0000	1.0000
Age	41.4	40.4	41.7	40.9	41.3	39.5
AgeSq	1905.0	1747.3	2004.8	1784.8	1875.0	1692.9
HDO4	0.3506	0.3153	0.2598	0.2591	0.3780	0.3971
CDO4	0.0640	0.0225	0.1402	0.0279	0.0411	0.0147
CGR4	0.1751	0.2399	0.2168	0.2629	0.1625	0.2064
GRA4	0.0078	0.0199	0.0150	0.0279	0.0056	0.0081
Never	0.1846	0.1828	0.4056	0.1690	0.1181	0.2028
Ever	0.0696	0.0556	0.0561	0.0328	0.0737	0.0887
HomeRent	0.0013	0.0029	0.0000	0.0028	0.0017	0.0030
HomeJun	0.0061	0.0058	0.0037	0.0052	0.0067	0.0066
LUrate	3.23	3.19	3.26	3.19	3.22	3.18
ChildY0	0.3952	0.4233	0.1794	0.4721	0.4601	0.3524
ChildY1	0.0705	0.0465	0.0206	0.0646	0.0855	0.0203
ChildY2	0.1820	0.1538	0.0692	0.1865	0.2160	0.1065
ChildY3	0.1245	0.1359	0.0467	0.1505	0.1479	0.1146
ChildY4	0.1444	0.2078	0.0766	0.2137	0.1648	0.1993
CoresY1	0.1513	0.1369	0.1738	0.1226	0.1445	0.1577
MoneyTo	0.3519	0.4165	0.2561	0.4354	0.3808	0.3889
MoneyFrom	0.1297	0.1191	0.0860	0.1299	0.1429	0.1034
Health4	2.71	2.44	2.64	2.35	2.72	2.56
Health3	2.30	2.06	2.35	2.02	2.29	2.14
Health2	2.21	2.02	2.26	1.94	2.19	2.12
HealthGood4	0.5132	0.6408	0.5514	0.6882	0.5017	0.5720
HealthBad4	0.2231	0.1181	0.2168	0.0950	0.2250	0.1516
HealthGood3	0.6667	0.7785	0.6561	0.8090	0.6699	0.7343
HealthBad3	0.1288	0.0620	0.1570	0.0510	0.1204	0.0781
HealthGood2	0.6974	0.7713	0.6841	0.8052	0.7013	0.7221
HealthBad2	0.1267	0.0639	0.1383	0.0510	0.1232	0.0827

주와 자료: <표 11> 참조.

<표 13> 취업상태별 기초통계량(제5차년도) (계속)

변수명	전체		남성		여성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표본수	2,313	4,836	535	2,864	1,778	1,972
NonLab	689.1	311.7	879.5	319.3	631.8	300.7
(유소득 비중)	49.9	36.8	55.9	36.8	48.1	37.0
(유소득 평균)	1,381.1	846.0	1,573.7	868.5	1,313.8	813.5
TfiF	76.4	28.8	90.2	31.7	72.3	24.8
(유소득 비중)	11.0	7.3	11.4	7.9	10.9	6.5
(유소득 평균)	696.0	395.2	791.1	402.9	665.9	381.7
TfiR	331.3	137.9	472.2	143.0	288.9	130.4
(유소득 비중)	12.7	8.0	15.7	8.0	11.8	8.0
(유소득 평균)	2,615.5	1,718.5	3,007.6	1,781.0	2,457.9	1,627.4
TfiS	107.9	21.0	193.4	21.2	82.1	20.8
(유소득 비중)	9.5	4.5	15.9	3.8	7.5	5.4
(유소득 평균)	1,139.2	470.7	1,217.1	550.9	1,089.7	387.5
TfiT	114.8	66.7	71.0	61.3	128.0	74.5
(유소득 비중)	28.9	21.5	29.7	21.1	28.6	22.1
(유소득 평균)	397.7	310.0	238.8	290.2	447.3	337.6
TfiE	58.6	57.3	52.7	62.2	60.4	50.3
(유소득 비중)	5.0	4.7	4.3	4.5	5.2	4.9
(유소득 평균)	1,168.9	1,226.8	1,226.7	1,370.0	1,154.7	1,032.8
ValAsset	7,158	6,645	6,169	6,849	7,456	6,348
(유소득 비중)	76.4	80.3	68.8	81.0	78.7	79.2
(유소득 평균)	9,365	8,277	8,968	8,451	9,469	8,020
ValReal	3,797	3,689	3,333	3,789	3,937	3,543
(유소득 비중)	22.8	24.7	23.4	24.0	22.7	25.7
(유소득 평균)	16,633	14,940	14,266	15,795	17,368	13,782
ValFin	2,016	1,594	2,138	1,659	1,979	1,499
(유소득 비중)	65.1	69.6	57.2	70.4	67.5	68.5
(유소득 평균)	3,096	2,291	3,738	2,358	2,933	2,190
ValHome	1,345	1,362	698	1,400	1,540	1,306
(유소득 비중)	15.1	15.9	10.1	16.8	16.6	14.8
(유소득 평균)	8,889	8,542	6,913	8,356	9,250	8,848
ValDebt	2,067	2,387	1,865	2,321	2,128	2,483
(유소득 비중)	50.3	56.0	51.0	54.7	50.1	57.8
(유소득 평균)	4,111	4,262	3,654	4,239	4,251	4,295

주와 자료: <표 11> 참조.

3. 실증분석: 취업결정요인과 건강상태가 미치는 효과

가. 취업결정요인 분석모형

<표 14>와 <표 15>는 제4차년도 표본을 이용하여 최적모형을 모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인 방식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H_0: y^* = X\beta + \epsilon \quad \text{vs.} \quad H_a: y^* = X\beta + Z\delta + \epsilon$$

로 설정하면, 이는 곧

$$H_0: \delta = 0 \quad \text{vs.} \quad H_a: \delta \neq 0$$

와 동일하며, 이는 곧 추가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가를 가설검정하는 것이다. 검정통계량은

$$\chi_0^2 = -2(\ln\Omega_u^* - \ln\Omega_r^*) \sim \chi^2(r)$$

로 Ω_u^* 는 대립가설과 같이 제약되지 않은 모형을 최우추정법으로 추정하여 얻어지는 최우도(maximum likelihood)값, Ω_r^* 는 귀무가설로 제약된 모형을 최우추정법으로 추정하여 얻어지는 최우도값이며, 우도비검정통계량(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s)은 카이스퀘어분포(χ^2 distribution)를 하며, 자유도(r)는 귀무가설에서 제약하는 제약의 개수이다. 통계량의 값이 일정 유의수준으로 정해지는 기각역에 떨어지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reject) 그렇지 않으면 귀무가설을 수락(accept)한다.

두 표에서 보면, 근로외소득은 총체적으로나 각 구성요소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업확률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으며 계수추정치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모형의 단순성(parsimony)을 고려하여 근로외소득 자체변수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의 경우는 자산구성요소별로 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므로 각 구성요소를 결정요인으로 활용한다. 유일하게 노동수요를 반영하는 실업률가 취업확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자녀존재 여부에 대한 추정치는 각각 유의수준이나 효과의 크기에서 상이하므로 연령무관한 자녀 존재보다 유용한 결정요인으로 보인다. 각 변수들이 추가될 때마다 귀무가설이 기각되므로 최종 모형으로 모형(B)를 사용하기로 한다(물론 존속과의 각 방향 경제적 교류는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관심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모형 (B)의 결과를 보면, 예상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취업확률이 낮고, 일정 연령까지는 연령층이 상승할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지고 그 이후 하락한다.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취업확률을 높이고 있으나 이는 대졸 이상에만 적용되며, 고졸미만 저학력자는 고졸보다 취업확률이 높은 반면 고졸 초과 대졸미만은 오히려 취업확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예상과는 다르다. 기혼유배우자와 비교할 때 미혼이나 기혼 무배우자의 취업확률이 높게 나타나 배우자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아직 맞벌이가 일반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근로외소득은 이론에서 예상하는 대로 경제활동참가를 낮춤으로써 취업확률을 낮추고 있다. 자산이 미치는 효과는 구성요소별로 상이하다.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이나 가구부채는 오히려 취업확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반면 거주주택가치는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거주지역 실업률은 현저하게 취업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수요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보호(care)를 필요로 하는 자녀 존재는 부모의 경제활동참가를 막음으로써 취업확률을 낮추는데, 특히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커지며(특히 0~2세 미만), 집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방과후 일정을 편성할 수 있는 9세 이상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4> 노동공급(취업)모형 설정 (제4차년도)

	모형 (1)	모형 (1')	모형 (2)	모형 (2')
표본수			7,986	
Intercept	-2.5191 (.2353) ***	-2.5165 (.2355) ***	-2.6183 (.2401) ***	-2.5075 (.2384) ***
Female	-0.8688 (.0328) ***	-0.8689 (.0328) ***	-0.8680 (.0330) ***	-0.8774 (.0331) ***
Age	0.1771 (.0108) ***	0.1766 (.0108) ***	0.1771 (.0109) ***	0.1775 (.0109) ***
AgeSq	-0.0021 (.0001) ***	-0.0021 (.0001) ***	-0.0021 (.0001) ***	-0.0021 (.0001) ***
HDO4	0.1729 (.0414) ***	0.1691 (.0416) ***	0.1592 (.0422) ***	0.1752 (.0423) ***
CDO4	-0.4889 (.0846) ***	-0.4921 (.0847) ***	-0.5029 (.0848) ***	-0.5187 (.0849) ***
CGR4	0.2442 (.0420) ***	0.2449 (.0421) ***	0.2570 (.0425) ***	0.2398 (.0427) ***
GRA4	0.4961 (.1450) ***	0.4880 (.1453) ***	0.5202 (.1449) ***	0.4983 (.1453) ***
Never	0.2881 (.0584) ***	0.2840 (.0586) ***	0.2656 (.0587) ***	0.2689 (.0591) ***
Ever	0.1249 (.0660) *	0.1311 (.0664) **	0.1492 (.0667) **	0.1745 (.0668) ***
LNonLab	-0.0567 (.0057) ***		-0.0597 (.0058) ***	-0.0660 (.0059) ***
LTfiF		-0.0485 (.0101) ***		
LTfiR		-0.0349 (.0098) ***		
LTfiS		-0.0355 (.0124) ***		
LTfiT		-0.0565 (.0092) ***		
LTfiE		-0.0297 (.0109) ***		
LValAsset			0.0154 (.0077) **	
LValReal				0.0211 (.0044) ***
LValFin				0.0192 (.0049) ***
LValHome				-0.0126 (.0061) **
LValDebt			0.0125 (.0040) ***	0.0133 (.0041) ***
HomeRent			-0.0846 (.0557)	-0.0635 (.0560)
HomeJun			-0.1427 (.0350) ***	-0.1349 (.0353) ***
우도함수	-4435.2	-4433.7	-4419.9	-4398.5
검정통계량	98.24 ***	101.33 ***	30.68 ***	73.32 ***

주와 자료: <표 11> 참조.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검정통계량은 모형 (1)에서 귀무가설 $H_0: \text{NonLab 계수}=0$, 모형 (1')에서 귀무가설 $H_0: \text{세부비근로소득 각각의 계수}=0$ 에 대한 가설검정, 모형 (2)과 모형(2')에서 모형 (1')을 귀무가설로 설정한 가설검정에 대한 우도비검정 통계량으로 $\chi^2(r)$ 분포(여기서 r 은 자유도)를 가짐.

<표 15> 노동공급(취업)모형 설정 (제4차년도)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B)
표본수			7,986	
Intercept	-2.3493 (.2438) ***	-1.7513 (.2614) ***	-1.7386 (.2615) ***	-1.7667 (.2621) ***
Female	-0.8760 (.0331) ***	-0.8947 (.0333) ***	-0.8993 (.0334) ***	-0.8991 (.0334) ***
Age	0.1807 (.0109) ***	0.1631 (.0115) ***	0.1618 (.0115) ***	0.1618 (.0115) ***
AgeSq	-0.0022 (.0001) ***	-0.0020 (.0001) ***	-0.0020 (.0001) ***	-0.0020 (.0001) ***
HDO4	0.1692 (.0424) ***	0.1553 (.0428) ***	0.1561 (.0429) ***	0.1603 (.0430) ***
CDO4	-0.5166 (.0850) ***	-0.5363 (.0850) ***	-0.5334 (.0850) ***	-0.5334 (.0850) ***
CGR4	0.2442 (.0427) ***	0.2600 (.0430) ***	0.2585 (.0430) ***	0.2581 (.0430) ***
GRA4	0.5053 (.1455) ***	0.5313 (.1462) ***	0.5315 (.1460) ***	0.5339 (.1461) ***
Never	0.2868 (.0594) ***	0.0689 (.0693)	0.0481 (.0697)	0.0654 (.0705)
Ever	0.1765 (.0669) ***	0.1773 (.0672) ***	0.1873 (.0674) ***	0.1943 (.0676) ***
LNonLab	-0.0667 (.0059) ***	-0.0661 (.0059) ***	-0.0690 (.0060) ***	-0.0701 (.0061) ***
LValReal	0.0192 (.0045) ***	0.0178 (.0045) ***	0.0173 (.0045) ***	0.0175 (.0045) ***
LValFin	0.0193 (.0049) ***	0.0201 (.0049) ***	0.0213 (.0049) ***	0.0206 (.0049) ***
LValHome	-0.0112 (.0061) *	-0.0108 (.0061) *	-0.0107 (.0061) *	-0.0109 (.0061) *
LValDebt	0.0128 (.0042) ***	0.0129 (.0042) ***	0.0127 (.0042) ***	0.0126 (.0042) ***
HomeRent	-0.0551 (.0561)	-0.0640 (.0563)	-0.0587 (.0563)	-0.0594 (.0563)
HomeJun	-0.1391 (.0354) ***	-0.1403 (.0355) ***	-0.1285 (.0357) ***	-0.1321 (.0358) ***
LUrate	-0.0613 (.0196) ***	-0.0652 (.0197) ***	-0.0623 (.0197) ***	-0.0629 (.0198) ***
ChildY1		-0.2840 (.0666) ***	-0.2855 (.0667) ***	-0.2881 (.0668) ***
ChildY2		-0.1829 (.0481) ***	-0.1809 (.0482) ***	-0.1849 (.0482) ***
ChildY3		-0.1222 (.0506) **	-0.1267 (.0506) **	-0.1301 (.0507) **
ChildY4		0.0191 (.0463)	0.0175 (.0464)	0.0161 (.0464)
CoresY1			0.1423 (.0480) ***	0.1531 (.0485) ***
MoneyTo				0.0339 (.0352)
MoneyFrom				0.0633 (.0498)
우도함수	-4393.7	-4372.3	-4367.9	-4366.4
검정통계량	9.75 ***	42.78 ***	8.84 ***	2.81

주와 자료: <표 11> 참조.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검정통계량은 각각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를 귀무가설로 설정한 가설검정에 대한 우도비검정 통계량으로 $\chi^2(r)$ 분포(여기서 r 은 자유도)를 가짐.

나. 건강상태와 취업확률

<표 16>은 건강상태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첫 두 모형 (H1)과 (H2)는 현재 건강상태가 미치는 추가적인 효과를 (H3)와 (H4)는 현재 뿐 아니라 과거 건강상태가 추가로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7>은 이를 여성과 남성이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별로 분리하여 추정한 것이며, <표 18>은 이를 제5차년도에 적용한 것이다.

<표 16> 건강상태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 (제4차년도)

	모형 (H1)		모형 (H2)		모형 (H3)		모형 (H4)	
표본수	7,986							
Intercept	-1.4515 (.2655) ***		-1.8962 (.2665) ***		-1.3092 (.2676) ***		-1.8708 (.2722) ***	
Female	-0.8709 (.0337) ***		-0.8746 (.0337) ***		-0.8674 (.0337) ***		-0.8721 (.0338) ***	
Age	0.1642 (.0116) ***		0.1627 (.0116) ***		0.1636 (.0116) ***		0.1610 (.0116) ***	
AgeSq	-0.0020 (.0001) ***		-0.0020 (.0001) ***		-0.0020 (.0001) ***		-0.0019 (.0001) ***	
HDO4	0.1999 (.0435) ***		0.2011 (.0435) ***		0.2026 (.0436) ***		0.2070 (.0436) ***	
CDO4	-0.5265 (.0852) ***		-0.5314 (.0852) ***		-0.5216 (.0854) ***		-0.5279 (.0855) ***	
CGR4	0.2517 (.0431) ***		0.2515 (.0431) ***		0.2538 (.0431) ***		0.2530 (.0431) ***	
GRA4	0.5359 (.1480) ***		0.5378 (.1478) ***		0.5380 (.1482) ***		0.5470 (.1480) ***	
Never	0.0797 (.0708) ***		0.0799 (.0707) ***		0.0793 (.0708) ***		0.0900 (.0709) ***	
Ever	0.2245 (.0682) ***		0.2298 (.0683) ***		0.2367 (.0685) ***		0.2555 (.0688) ***	
LNonLab	-0.0689 (.0061) ***		-0.0686 (.0061) ***		-0.0694 (.0061) ***		-0.0681 (.0061) ***	
LValReal	0.0164 (.0045) ***		0.0164 (.0045) ***		0.0158 (.0045) ***		0.0157 (.0045) ***	
LValFin	0.0172 (.0050) ***		0.0172 (.0050) ***		0.0145 (.0050) ***		0.0150 (.0050) ***	
LValHome	-0.0123 (.0062) **		-0.0127 (.0062) **		-0.0115 (.0062) *		-0.0132 (.0062) **	
LValDebt	0.0133 (.0042) ***		0.0133 (.0042) ***		0.0126 (.0042) ***		0.0124 (.0042) ***	
HomeRent	-0.0440 (.0566) ***		-0.0450 (.0567) ***		-0.0382 (.0568) ***		-0.0407 (.0568) ***	
HomeJun	-0.1306 (.0359) ***		-0.1308 (.0359) ***		-0.1371 (.0360) ***		-0.1356 (.0360) ***	
LUrate	-0.0667 (.0198) ***		-0.0689 (.0198) ***		-0.0702 (.0199) ***		-0.0738 (.0199) ***	
ChildY1	-0.2796 (.0669) ***		-0.2830 (.0669) ***		-0.2780 (.0670) ***		-0.2850 (.0670) ***	
ChildY2	-0.1777 (.0483) ***		-0.1784 (.0483) ***		-0.1746 (.0484) ***		-0.1730 (.0484) ***	
ChildY3	-0.1279 (.0508) **		-0.1300 (.0508) **		-0.1315 (.0508) ***		-0.1322 (.0509) ***	
ChildY4	0.0139 (.0466) ***		0.0124 (.0466) ***		0.0136 (.0467) ***		0.0110 (.0467) ***	
CoresY1	0.1557 (.0487) ***		0.1552 (.0487) ***		0.1586 (.0488) ***		0.1585 (.0488) ***	
MoneyTo	0.0299 (.0353) ***		0.0299 (.0353) ***		0.0193 (.0354) ***		0.0251 (.0354) ***	
MoneyFrom	0.0655 (.0499) ***		0.0681 (.0498) ***		0.0650 (.0499) ***		0.0703 (.0500) ***	
HealthGood4			0.1452 (.0384) ***				0.1152 (.0394) ***	
HealthBad4			-0.2685 (.0505) ***				-0.1758 (.0534) ***	
HealthGood3							0.1118 (.0461) **	
HealthBad3							-0.1560 (.0690) **	
HealthGood2							-0.0580 (.0455) ***	
HealthBad2							-0.2267 (.0694) ***	
Health4	-0.1759 (.0205) ***				-0.1371 (.0220) ***			
Health3					-0.0928 (.0213) ***			
Health2					-0.0194 (.0197) ***			
우도함수	-4329.6		-4329.6		-4316.7		-4310.6	
검정통계량	73.61 ***		73.76 ***		25.83 ***		37.95 ***	

주와 자료: <표 11> 참조.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검정통계량은 <표 14>의 모형 (B)를 귀무가설, 모형 (H1)과 (H2)를 각각 대립가설로, 모형 (H1)과 (H2)를 각각 귀무가설과 모형 (H3)와 (H4)를 각각 대립가설 설정한 가설검정에 대한 우도비검정 통계량으로 $\chi^2(r)$ 분포(여기서 r 은 자유도)를 가짐.

<표 17> 건강상태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 (제4차년도) - 성별

	남성		여성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표본수	3,828		4,158	
Intercept	-3.0079 (.4171) ***	-3.1031 (.4335) ***	-2.0423 (.3546) ***	-2.0688 (.3678) ***
Age	0.2394 (.0181) ***	0.2404 (.0183) ***	0.1333 (.0160) ***	0.1308 (.0161) ***
AgeSq	-0.0030 (.0002) ***	-0.0029 (.0002) ***	-0.0017 (.0002) ***	-0.0016 (.0002) ***
HDO4	0.0804 (.0714)	0.1207 (.0731) *	0.2258 (.0573) ***	0.2655 (.0580) ***
CDO4	-0.5610 (.1128) ***	-0.5621 (.1137) ***	-0.1150 (.1527)	-0.1045 (.1538)
CGR4	0.0337 (.0702)	0.0209 (.0707)	0.2396 (.0593) ***	0.2380 (.0594) ***
GRA4	0.3826 (.2088) *	0.3851 (.2142) *	0.4807 (.2459) *	0.5066 (.2475) **
Never	-0.5589 (.1078) ***	-0.5480 (.1090) ***	0.5571 (.0997) ***	0.5768 (.1000) ***
Ever	-0.3991 (.1265) ***	-0.3363 (.1295) ***	0.3958 (.0815) ***	0.4343 (.0825) ***
LNonLab	-0.0942 (.0099) ***	-0.0886 (.0101) ***	-0.0545 (.0080) ***	-0.0542 (.0081) ***
LValReal	0.0126 (.0077)	0.0098 (.0078)	0.0211 (.0058) ***	0.0199 (.0059) ***
LValFin	0.0449 (.0083) ***	0.0361 (.0084) ***	0.0047 (.0065)	0.0010 (.0065)
LValHome	0.0016 (.0098)	-0.0015 (.0100)	-0.0227 (.0081) ***	-0.0249 (.0081) ***
LValDebt	0.0057 (.0072)	0.0051 (.0073)	0.0211 (.0054) ***	0.0213 (.0055) ***
HomeRent	-0.1574 (.0934) *	-0.1298 (.0949)	-0.0422 (.0734)	-0.0310 (.0739)
HomeJun	-0.0109 (.0626)	-0.0171 (.0633)	-0.2119 (.0465) ***	-0.2129 (.0467) ***
LUrate	-0.0816 (.0337) **	-0.0983 (.0343) ***	-0.0476 (.0257) *	-0.0558 (.0259) **
ChildY1	0.0728 (.1273)	0.0619 (.1279)	-0.6182 (.0941) ***	-0.6134 (.0944) ***
ChildY2	0.1289 (.0920)	0.1207 (.0927)	-0.3834 (.0640) ***	-0.3685 (.0641) ***
ChildY3	-0.0709 (.0999)	-0.0674 (.1010)	-0.1873 (.0646) ***	-0.1898 (.0648) ***
ChildY4	0.0044 (.0889)	-0.0129 (.0904)	-0.0036 (.0581)	-0.0018 (.0582)
CoresY1	0.0428 (.0800)	0.0419 (.0812)	0.2500 (.0634) ***	0.2485 (.0636) ***
MoneyTo	0.1350 (.0617) **	0.1162 (.0624) *	-0.0113 (.0459)	-0.0148 (.0461)
MoneyFrom	-0.0237 (.0930)	-0.0022 (.0947)	0.0488 (.0642)	0.0506 (.0643)
HealthGood4		0.1030 (.0698)		0.1206 (.0505) **
HealthBad4		-0.2279 (.0972) **		-0.1663 (.0664) **
HealthGood3		0.1365 (.0824) *		0.0702 (.0580)
HealthBad3		-0.2943 (.1191) **		-0.0613 (.0865)
HealthGood2		-0.0356 (.0801)		-0.0723 (.0576)
HealthBad2		-0.2181 (.1217) *		-0.2068 (.0867) **
우도합수	-1431.2	-1396.7	-2620.3	-2599.0
검정통계량		69.14 ***		42.60 ***

주와 자료: <표 11> 참조.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검정통계량은 모형 (1)을 귀무가설, 모형 (2)를 대립가설로 설정한 가설검정에서 우도비검정 통계량으로 $\chi^2(r)$ 분포(여기서 r 은 자유도)를 가짐.

<표 18> 건강상태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 (제5차년도)

	전체	남성	여성
표본수	7,149	3,399	3,750
Intercept	-1.5910 (.3014) ***	-3.1132 (.5014) ***	-1.8543 (.3966) ***
Female	-1.0252 (.0373) ***		
Age	0.1534 (.0128) ***	0.2380 (.0210) ***	0.1223 (.0173) ***
AgeSq	-0.0019 (.0001) ***	-0.0030 (.0002) ***	-0.0016 (.0002) ***
HDO5	0.2471 (.0469) ***	0.2029 (.0821) **	0.2762 (.0608) ***
CDO5	-0.7339 (.0921) ***	-0.7010 (.1277) ***	-0.8032 (.1471) ***
CGR5	0.1598 (.0471) ***	-0.0826 (.0790)	0.1566 (.0640) **
GRA5	0.3279 (.1586) **	0.0277 (.2226)	0.4341 (.2687)
Never5	0.0917 (.0800)	-0.5184 (.1296) ***	0.5288 (.1100) ***
Ever5	0.2500 (.0709) ***	-0.6526 (.1374) ***	0.5050 (.0843) ***
LNonLab5	-0.0751 (.0064) ***	-0.1010 (.0111) ***	-0.0635 (.0083) ***
LValReal5	0.0135 (.0048) ***	0.0265 (.0086) ***	0.0096 (.0060)
LValFin5	0.0167 (.0052) ***	0.0398 (.0092) ***	0.0045 (.0066)
LValHome5	0.0030 (.0057)	0.0180 (.0112)	-0.0059 (.0072)
LValDebt5	0.0195 (.0046) ***	0.0050 (.0082)	0.0270 (.0058) ***
HomeRent5	0.6749 (.3972) *	5.5130 (35.44)	0.7148 (.4566)
HomeJun5	-0.0073 (.2217)	-0.4004 (.4566)	0.0939 (.2698)
LUrate5	-0.0797 (.0217) ***	-0.0621 (.0387)	-0.0834 (.0277) ***
ChildFY1	-0.3122 (.0825) ***	0.2336 (.1737)	-0.7457 (.1172) ***
ChildFY2	-0.2321 (.0542) ***	0.1283 (.1110)	-0.4293 (.0701) ***
ChildFY3	-0.0959 (.0549) *	0.0457 (.1215)	-0.1775 (.0680) ***
ChildFY4	-0.0176 (.0500)	0.0673 (.1033)	-0.0551 (.0611)
CoresFY1	0.2024 (.0521) ***	0.0372 (.0868)	0.3402 (.0677) ***
MoneyTo5	0.0736 (.0379) *	0.1286 (.0699) *	0.0563 (.0482)
MoneyFrom5	0.0675 (.0567)	0.0261 (.1083)	0.0405 (.0725)
HealthGood4	0.0841 (.0426) **	0.0891 (.0789)	0.0814 (.0534)
HealthBad4	-0.1912 (.0572) ***	-0.2887 (.1066) ***	-0.1808 (.0697) ***
HealthGood3	0.0881 (.0495) *	0.0692 (.0923)	0.0698 (.0613)
HealthBad3	-0.1180 (.0743)	-0.2299 (.1329) *	-0.0446 (.0914)
HealthGood2	-0.0597 (.0491)	0.0985 (.0881)	-0.1313 (.0612) **
HealthBad2	-0.1491 (.0740) **	-0.0152 (.1352)	-0.1736 (.0903) *
우도합수	-3660.6	-1089.0	-2325.0

주와 자료: <표 11> 참조.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추정결과를 요약하기로 한다. 첫째, <표 16>에서 보듯,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이를 5점 척도로 사

용하나 건강양호와 건강불량 두 가변수로 사용하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효과를 갖고 있으며, 과거 1년 전과 2년 전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다. 5점 척도를 사용할 경우 1년 전 주관적 건강상태가 미치는 효과는 현재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2년 전 주관적 건강상태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두 개 가변수를 사용할 경우 2년 전 건강불량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추가효과를 갖는 반면 2년 전 건강양호가 미치는 추가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으며 방향도 예상과 달리 나타나 건강상태가 미치는 효과에서 비대칭성(asymmetry)이 어느 정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표 17>에서 보듯, 여성과 남성 취업결정요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자녀보육과 가사노동을 주로 부담한다는 점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다양한 차별적 관행이나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이 빚어낸 결과로 보여진다. 먼저 자녀보육이나 고령자동거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나 취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전혀 미치지 않는 반면 여성은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9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 자녀의 존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나아가 취업확률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0~2세 미만 자녀의 존재는 거의 여성의 노동시장노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준높고 신뢰할만한 금전적으로(여성이 위탁할 때 발생하는 제반 비용(costs)과 여성이 위탁 후 얻게 되는 혜택(benefits)을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노동시장참여가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감당할만큼 저렴한 보육시설 접근성이 여성 경제활동참가를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셋째, 65세 이상 고령자의 동거가 여성의 취업확률을 높인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결론으로 보인다. 고령자이나 여전히 건강한 편인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부모의 존재는 아이들과 섞여 지내면서 오히려 여성에게는 경제활동참가를 독려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문헌에서 한쪽으로는 자녀보육과 다른 한쪽으로는 ‘늙은 부모’에게 보호(care)를 제공해야 하는 소위 ‘양쪽에서 압력받는 세대(sandwiched generation)’라는 논의와는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추후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추가로 미치는 효과는 경제적 도움을 받는 남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취업확률이 낮아지며, 경제적 도움을 주는 남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업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 유사한 결론을 보여준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추가효과가 유의하지는 않으나 남성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좀더 엄밀한 이론적 모형설정과 실증분석이 요구되어진다.

다섯째, 근로외소득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남녀 모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나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큰 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산이 미치는 효과를 보면, 남성에서는 금융자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반면 여성에서는 금융자산은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는 반면 부동산자산이나 가구부채가 유의하게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거주주택의 가치는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구성요소별로 전혀 다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녀 모두 예상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여성 취업확률에

는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가, 남성 취업확률에서는 그 이전의 주관적 건강상태까지 유의하게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 주관적 건강상태가 제5차년도 취업확률에 미치는 추가효과는, <표 18>에서 보듯,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남성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주관적 건강상태가 미치는 효과는 예상과 일치하나 건강양호가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건강불량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 건강상태가 갖는 효과의 비대칭성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여성에 있어서는 전년 건강상태가 미치는 효과에 비대칭성이 존재하지만 예상과 일치하며, 2년 전 건강상태가 미치는 효과는 방향은 예상과 일치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3년 전 건강상태가 미치는 효과는 '건강상태가 보통'인 경우와 비교할 때, 건강양호와 건강불량 모두 부정적이고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추후 완성)